

2023년 8월 24일(목) 수시

이 보도자료는 2023년 8월 24일 오후 14: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부산광역시 보도자료



담당부서 : 투자유치과 투자유치팀

유 형 : 성과

사진유무 : 사진있음 ■ 사진없음 □

과장	김귀옥	051-888-4440
팀장	송정숙	051-888-4443
담당자	이진호	051-888-4442

부산시, 부산형 기회발전특구 추진전략 마련... 부산금융특구 등 지정 추진

- ◆ 8.24.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제37차 비상경제대책회의 개최... 박형준 시장 주재로 각계 전문가들과 ‘부산형 기회발전특구 추진전략’ 논의
- ◆ 부산형 기획발전특구 추진 위해 3가지 특구모델(①부산금융특구 ②전력반도체 특구 ③이차전지-모빌리티 특구)을 제시하고, 중점 추진과제, 대정부 건의과제 등을 도출해

- 부산시(시장 박형준)는 오늘(24일)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제37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, 박형준 부산시장의 주재로 각계 전문가들과 ‘부산형 기회발전특구 추진전략’을 논의했다고 밝혔다.
 - 기회발전특구는 현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, 비수도권 투자 촉진을 위해 지자체와 기업이 협의해 지정한 지역을 특구로 신청해 지정받으면 정부가 세제 혜택, 재정 지원, 규제 특례, 정주 여건 개선 등의 파격적 인센티브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제도다.
 - 지난 7월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이 제정·시행되며,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근거가 마련된 바 있다.
- 시는 그동안 부산형 특구모델과 유치전략 마련을 위해 관련 부서와 산하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실무전담(TF)팀을 구성·운영하고, 특별강연회와 전문가 초청 토론회, 기초지자체 대상 사전 수요조사와 간담회 등을 추진해왔다.
- 시는 이날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기회발전특구의 취지, 정부동향을 공유하고 부산형 기회발전특구 추진전략에 대한 전문가 자문, 관련 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했다.
- 첫 번째로, 경쟁력 있고 지속가능한 부산형 기회발전특구 모델로 ①부산금융특구 ②전력반도체 특구 ③이차전지-모빌리티 특구를 제시하고 단계적으로 특구 지정을 추진한다.

- 이는 시가 기회발전특구의 성공 요인으로 타 시·도와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특화산업을 중심으로 한 부산시 주도의 특구 모델 발굴과 앵커기업 유치에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.
- **제1호 부산형 기회발전특구로 제시한 ‘부산금융특구’는 문현금융단지과 북항2단계 일원을 대상지역으로 한다.**
 - 부산은 금융 분야에서 그 어느 도시보다 완비된 금융중심도시며 많은 강점과 성장잠재력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다.
- **시는 이미 포화상태인 기존 문현금융단지에서 북항2단계 재개발지역까지 범위를 확대해 해양과 파생금융 등 부산만의 특화된 ‘부산금융특구’로 지정받으면, 향후 국정과제인 한국산업은행 이전과 2차 금융기관 부산 이전도 속도감과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.**
- **아울러, 시는 특구 지정의 일환으로 전담기구인 ‘(가칭)부산금융특구청’을 신설해 수도권에 집중된 금융업 관련 각종 인허가, 감독 권한을 부산지역에 분산하는 등 금융산업 분야에서의 각종 규제를 파격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고도 강조했다.**
- **규제완화가 시급한 금융 분야와는 달리, 앵커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감면, 재정지원 등이 중요한 전력반도체특구와 이차전지·모빌리티특구는 정부의 세제지원, 재정지원 대책 등이 가시화 되는대로 지정 신청을 추진할 예정이다. 그 외에도 시는 중장기적으로 케이(K)-콘텐츠특구, 바이오헬스특구, 첨단정보통신기술(ICT)특구, 해양디지털특구 등도 제안했다.**
- **두 번째로, 앵커기업을 중심으로 한, 경쟁력 있는 기업 유치 활동에 박차를 가한다.**
 - 기회발전특구 지정은 사전 투자수요를 확보하는 것이 선결 요건인 만큼, 세계적인 앵커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필수적이다.
- **그동안 매년 11월 서울에서만 개최되던 정부의 ‘외국인 투자주간’ 행사를 부산으로 유치하고, 행사 규모를 장관, 지자체장, 글로벌기업 최고경영자(CEO) 등이 참석하는 역대 최고 규모로 격상해 외국기업, 해외투자자, 언론 관계자 등 1천여 명을 대상으로 투자하기 좋은 세계적(글로벌) 도시 부산의 매력을 대대적으로 홍보한다.**
 - 아울러, 오는 10월에는 서울에서 수도권 소재 대기업과 기술강소기업을 선별해 대규모 투자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.
- **마지막으로, 수도권 기업의 부산행을 견인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인센티브와 획기적인 규제 완화 대책 마련에 노력한다.**

- 대동소이, 천편일률적인 인센티브 제공에서 벗어나, 부산의 주도하에 부산형 기회발전특구에 특화된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규제 완화를 넘어 규제 철폐 수준의 과제들을 적극 발굴해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.

- 박형준 부산시장은 “기회발전특구가 부산을 한 단계 발전시킬 기회가 될 것이라는 신념으로 모든 가능성과 채널을 열어놓고 적극 추진하겠다”라며, “우리시는 청년이 일자리를 찾아 부산으로 모이고 부산의 청년이 계속해서 부산에 머물고 싶은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”라고 의지를 밝혔다.



○ 주요 추진전략 및 전담 조직간 역할 설정



□ **정부 추진동향**

- '22. 4. : 기회발전특구 신규 지정 및 운영 발표(4.27. 인수위)
- '22. 7. :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채택
- '23. 5. : 지방투자촉진특별법 발의(5.9.) ▶ **조세특례***, 지방투자위원회 설치
* 법인세·소득세·국세·지방세 감면, 법인세법, 소득세법, 조세제한특별법 등 개정 필요
- '22. 6. :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
▶ **기회발전특구 지정 근거 마련**,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·접경지역 기회발전특구로 지정 가능
▶ 당초 법률안의 교육자유특구 설치 근거 조항 삭제
- '23. 7. : 자치분권특별법 시행령* 제정(7.7.)
* 기회발전특구 지정,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, 지방시대위원회 설치·운영 등 세부사항 규정
- '23. 7. : 자치분권특별법 및 시행령 시행, 지방시대위원회 출범
- '24.中. : 기회발전특구 지정 공모

□ **부산형 기회발전특구 추진현황**

- '22. 3. : 지방이 주도하는 특구 모델 대정부 제안(시→인수위)
▶ 지역혁신형 경제자유구역(투자유치과), 글로벌 신산업 혁신특구(도시균형개발과) 포함
▶ 기존 인센티브가 가장 큰 제도인 경제자유구역 개선·확대를 통한 실질적 특구 마련
- '22. 4. : 지역혁신형 경제자유구역 설치운영 계획 수립(부산형 기회발전특구)
▶ 기존 인센티브가 가장 큰 제도인 경제자유구역 개선·확대를 통한 실질적 특구 마련
- '22. 8. : 글로벌 신산업 혁신특구 토론회 개최(도시균형개발과)
▶ 기회발전특구의 도시형 모델 제안(우암부두) / 한국경영학회 등 15명
- '23. 2. : 지역혁신형 경제자유구역 설치 관련 대정부건의(시도경제협의회)
▶ 내 용 : 경제자유구역의 ①도심내 지정 확대 및 ②지자체의 관리권한 확대(변경가능면적 10%→30%)
▶ 정부검토 결과 : (일부수용) ①부산시 개발계획 수립 후 산업부에 지정 신청 ②경제자유구역법 개정 추진
- '23. 3. : 기회발전특구 전담부서 지정, 본격 추진(투자유치과)
- 특구 추진방향 산업부 방문협의, 시 추진방향 국회의원(박수영) 설명
- 특구 대상지역 수도권 제외 대정부 건의(산업부 수출투자지원협의회)
- '23. 4. : 교육자유특구·글로벌대학 연계 방안 한국해양대 방문 협의
- '23. 5. : 기회발전특구 관련 특별강연(허문구 한국산업연구원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장)
▶ 정부 특구 추진안 소개, 부산형 기회발전특구 추진방향 제안
- '23. 6. : 부산형 기회발전특구 실무 TF 구성, 제1차 회의(6.7.)
- 기회발전특구 추진 **전문가 토론회**(6.15.) ▶ 균형발전특별위원회, 산업부, 국토부 등



